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5. 07. Vol 235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성하 유감 (盛夏有感)

가만 보자, 오늘이 칠월 며칠인가
고개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멈춘 듯 흘러가는 구름을 읽듯이
달력 위의 날짜를 쫓아본 것이 언제인가.

발걸음마다 꽃 피고 지던 날들,
이런 순간이 또 있을까 — 눈부심을 뿜내던 신록의 날들이
저기 어디쯤인가 있었지.
머리에 장미 꽃잎을 엮은 생크림 같이
향기롭고 달콤하던 날들은 지나가고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더라, 손꼽아본 일 아득하여
플라타너스, 마로니에, 가로수 푸른 꿈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날,
시제시제(時哉時哉)라 — 축배의 노래 속에 너풀너풀 춤추며
거칠 것 없는 호시절.

이글거리던 정오(正午) 폭염도 잊고
대자리에 누워 더위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것도 잠깐,
짧은 여름밤이 깜빡 지나간 후에는
속절없이 성하(盛夏)의 세월을 되짚어보는 날들이 닥칠 터인데

이렇게 한잠 자고 나면
가만 보자, 내일은 며칠날이 되는가.



류정환

- 충북 보은 출생
- 〈현대시학〉으로 등단
- 한국작가회의 회원
- 시집 〈검은 밥에 관한 고백〉, 〈상처를 만지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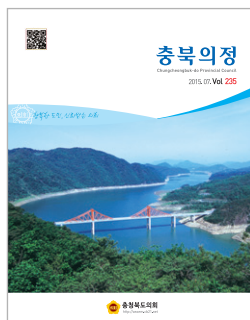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5. 07. Vol 235

Contents

- 04 | 제340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충북도의회 개원 1주년 주요성과
- 08 | 지방대 수도권 이전 제한 특별법 조속 통과 건의문
- 09 | 중부내륙선 충주역~수안보 구간 설계 방향 토론회
- 10 |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 12 | 해외 우호교류
- 14 | 각 위원회 활동상황
- 21 | 대집행부질문 · 답변
- 22 | 제340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 24 | 5분 자유발언
- 26 |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 건강 · 세무상식
- 30 | 의원논단



충북의 명소 - 제천 옥순봉(옥순대교)
충북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에 있는
옥순대교 위에서 바라보는 청풍호의
낙조 또한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다.
(김상훈 作)

- 발행일 2015. 7.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언구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주 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3
- F A 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는 6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제340회 임시회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현안들을 심사·의결했다.

‘지방대 수도권 이전 제한’ 개정 촉구 건의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등 주요 현안 처리

중부내륙선 충주역 ~ 수안보구간 설계방향 토론회

충북도의회는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 제 34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등에 이송하고,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또 중부내륙선 충주역~수안보구간 설계방향에 대한 토론회와 충청북도·도교육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4건

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도의회는 6월 9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현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김양희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 추진, 민선 6기 1년 충북도정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충청북도의회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로써 충청북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조 452억 원 대비 9.5%인 1,953억 원이 증액된 2조 2,405억 원으로 확정됐다.

제1회 충청북도 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단위: 천원)

회 계 별	당초예산액	추경예산요구액	증·감(계수조정)
계	2조 452억원	2조 2,405억원	△ 8억원
특별회계	2조 452억원	2조 2,405억원	△ 8억원

※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

전반에 대한 평가, 무상급식 대책, 태양광 학교 시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에 대비한 우리도의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뒤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이종욱, 윤홍창, 이숙애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실시해 △충북의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창출·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세명대 하남 제2캠퍼스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입 예방과 차단을 위한 충청북도의 종합대책 등을 각각 요구했다.

6월 18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박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

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윤홍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학업 중단 예정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그리고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9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임순목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요구했고, 윤은희 의원은 "메르스 관련 후속대책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이숙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전액 지원할 것"등을 각각 요구했다.

제10대
충북도의회 개원
1주년 주요 성과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 위해 정진

지역현안 현장확인 · 간담회 · 토론회 등 민생현장 의정에 답아

2014년 7월 8일 개원한 제10대 충북도의회가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며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도의회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의정 목표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소리를 오롯이 담고, 직접 도민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충북도의회는 개원 이후 2회의 정례회와 7회의 임시회를 개의하는 등 총 9회 119일간의 회기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1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민생관련 조례 52건을 의원 발의하여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마다 고군분투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도의회는 또 ‘중부내륙철도 감곡역사 원안설치 촉구 건의안’, ‘세명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등 충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섰다.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120건, 건의사항 198건 등 총 318건의 실적을 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행정운영이 도민의 뜻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이끌었다. 도의회 의원들은 질책만이 아닌 칭찬과 격려로 도정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통과 상생의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제10대 의회는 대집행부질문 9회 11명, 5분자유발언 51회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

와 고충을 여과없이 전달하여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민과의 대화를 적극 실천하고, 지난 2월 25일에는 32명의 의정참여단을 위촉하여 도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충주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하여 도민과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호평을 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회의 TV 생방송과 녹화방송도 호응을 얻고 있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고,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정책토론회 소식방을 개설하여 도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도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의정에 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정수행능력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연찬회를 18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외연수활동에 있어서는 사전설명회, 자체 귀국 보고회를 개최하여 모든 의원들이 이를 공유할수 있도록 해외연수 제도를 개선하였고, 의원연구활동도 제9대 의회의 3건보다 3배 많은 9건을 추진하는 등 성실히 공부하고 배우며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도의회는 해외 지자체와의 국제 교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1월 도의회와 우호교류를 맺은 광서장족자치구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흑룡강성을 방문하여 양 지역간 직항로 개설 및 확대, 2015 유기농산업엑스포 참가요청,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중국 기



업인들의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여 적극적인 협력 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외교적인 성과도 창출했다.

제10대 의회가 무엇보다도 큰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는 부분은 지난 1년 동안 31명의 도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충북건설을 위해 스스로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청렴한 도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역대 의회에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을 실천했을 점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도민들께 다가갈 준비를 마쳤으며, 지난해 12월 9일에는 기존의 관행을 깨고 과감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직접 발로 뛰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또한, 2009년 이후 5년째 동결되었던 의정비를 현실화하여 검직금지, 정치자금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방의원들이 보다 더 청렴하고 소신있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도의회 청사건립을 제10대 의회 현안과제로 정하고 독립청사의 필요성 등을 적극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



난 4월 15일에 도의회 청사건립의 토대 마련을 위한 중앙초 부지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언구 의장은 제10대 도의회의 개원 1주년을 돌아보며 “지난 1년간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정확히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를 통해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동분서주한 한해였다”고 소감을 말한 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름길이 아닌正道(正道)로 나아가다보면 반드시 본도(本道)에 도달한다는 진리를 새기며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많겠지만 31명의 도의원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더 나은 제10대 의회, 더 발전하는 충청북도, 더 행복하고 잘 사는 충북도민이 되도록 끊임없이 정진(精進)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지방대 수도권이전 제한 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충북도의회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국회, 정치권 등에 발송

충북도의회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추진과 관련, 인재들의 중앙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역 균형발전의 국가적 의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6월 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및 소속 위원,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발송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대학의 수도권이전 허용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현재 충북 제천시 소재 세명대

가 경기도 하남시 지역 미군부대 공여지에 학생 2,000여명 규모의 캠퍼스 설립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2개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지역 상권의 붕괴 및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또 “다행스럽게도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문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대학 캠퍼스의 수도권 이전이 허용되어 현재 5개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했으며 충북 소재 세명대학교를 포함한 7개 지방대학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6월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며, 자립형 지방화 촉진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과 발전을 명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符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 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문화적 격차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 지방대학 주변 상권의 붕괴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160만 충북도민의 의지를 모아 정중히 촉구 드립니다.

2015년 6월 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중부내륙선 충주역~수안보 구간 설계 방향 토론회

“접근성 · 편의성 · 지역주민 생활향상 고려” 등 다양한 의견 제시



건설소방위원회는 5월 26일 충주그랜드관광호텔 중연회장에서 '중부내륙선 충주역~수안보 구간 설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는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 주관으로 지난 5월 26일 충주그랜드관광호텔 연찬회장에서 지역주민, 도의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선 충주역~수안보 구간 설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부내륙선 철도 충주역~수안보 구간이 도심을 통과할 때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소음·진동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인근 건국대학교 학생들의 편의성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향상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충북환경연대 박일선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교통대 권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충주시청 백한기 경제건설국장, S2O 강동우 대표이사, (전)달천·단월연합동 김건배 주민자치위원장, 충주신문 이규홍 대표이사 등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교통대 권일 교수는 '중부내륙선 철도와 충주시 발전'이란 주제발표에서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검토와 대안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또 "도시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주민, 주변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배 (전)주민자치위원장은 "교통사고 증가 등의 문제점과 노선구획에 따른 주민의 편의문제,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도 고려

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홍 대표이사는 "철도신설로 인한 빨대효과(재래시장, 쇼핑 등) 대책이 필요하고, 도심 통과구간은 저심도 철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우 대표는 "역사주변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역사위치 선정에 신중해야 하며, 관광노선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한기 국장은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고려, 도심 교차구간 저심도, 이용계획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주민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봉방동 주민 권영정씨는 "도심구간은 지하화, 반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충주역 서광장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은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에 예상되는 다양한 대안과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말하고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도의회는 물론 충청북도, 충주시,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도의회 2014회계연도 강도 높은 결산검사



충북도의회는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제10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된 결산검사가 기존의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보다 세밀하고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해 예년보다 많은 지적·개선사항을 도출, 건전한 재정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충북도의회(의장이언구)가 위촉한 9명(최광옥·김영

주·김학철 도의원, 김창섭·허동진 회계사, 김기봉 세무사, 김대옥·김석부·이문재 전 공무원)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채권, 채무, 재산,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예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 결과 충청북도는 ▲환경관련단체 보조금 사업집행 소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조기정산 노력 강구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개선 등 18건의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리 및 퇴직급여예치금 적립 개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등 11건의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집행부의 예산집행내역과 예산의 이월·전용의 적정성, 불용예산 발생사유, 기금 및 채권·채무 관리상태, 전용예산 규모 및 사유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 향후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진천 광혜원고 이 전부지와 충북체육고, 제천지역에 새롭게 신축 이전한 북부출장소를 방문, 주

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꼼꼼하게 심사했다.

최광옥 대표위원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와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산검사를 진행했다”며 “도출된 검사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에 따른 감사위원의 의견서는 6월 18일까지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제출됐으며,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6월말까지 감사의견서를 첨부해 7월 정례회 기간 중 도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된다.

충북도 18건, 도교육청 11건 지적사항 도출 건전재정 운용과 올바른 집행방향 등 제시

지적 및 개선사항

● 충청북도: 18건(지적 15건, 개선 3건)

- △ 환경관련단체 보조금 사업 집행 소홀
- △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조기정산 노력 강구
- △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개선
- △ 예산유보를 통한 예산절감 개선 등

도의회, 충청북도 메르스 대책본부 방문

메르스 대책 · 대응상황 보고받고 예방에 만전 당부

충북도의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해 대책본부를 방문해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도의회 이연구 의장과 박종규 부의장, 임병운, 이양섭, 임희무, 김양희, 이숙애, 윤은희 의원 등이 6월 8일 충북도청 서관 5층에 설치된 메르스 대책본부 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현황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상황실 관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연구 의장은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직원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 도에선 아직 메르스 환자 발생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메르스 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현황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상황의 조기 종식을 위해 애써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메르스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충북도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확진판정부터 격리, 치료까지 철저한 대책 수립으로 도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충북의 경우 6월 17일 기준 격리 및 일

반 접촉자가 504명으로 하루사이 16명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치에 전념하도록 상향종료 시까지 청주·충주의료원과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도 6월 3일 긴급 교육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도교육청 신경인 교육국장과 도청 김양수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충북의 현재 현황과 대응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 자리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 한 후 휴교조치를 취한 학교가 3일 오전 현재 16개교”라며 “도교육청은 2일 메르스 대책반을 구성해 발생 감시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운영하고 있고, 메르스 관리체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메르스 예방수칙 교육,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메르스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감염 의심환자 발생과 확산이 우려된다”며 “도민과 학생·학부모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도민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최소화 하고 메르스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충북도의회는 6월 8일 충청북도 메르스 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빈틈없는 대응과 조속한 퇴치를 당부했다.



▲ 교육위원회는 6월 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메르스 확산에 따른 긴급회의를 소집해 충북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대응상황을 보고 받고 확산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와 우호교류 확대

국제 정기노선 확대 ·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참가 등 협의

충북도의회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이언구 의장을 단장으로 박종규 부의장, 박한범 운영위원장, 임병운 · 최병운 · 이숙애 의원, 강호동 의회사무처장 등 11명의 방문단을 구성해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를 공식 방문했다.

도의회의 이번 방문은 충북도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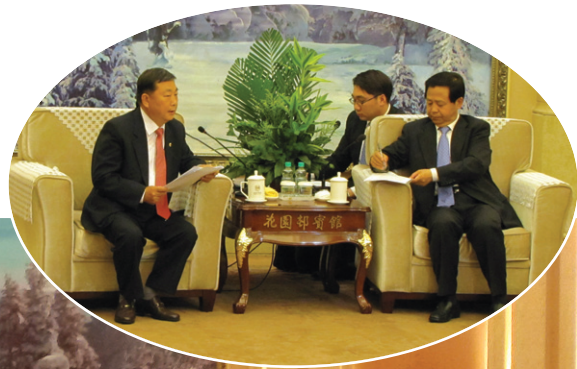
이번 방문에서 도의회와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회의는 ▲양 지역에 대한 국제교류사업 확대 방안 마련과 ▲경제, 문화, 관광, 예술 교류 등을 통한 공동 번영 · 발전을 이루기 위한 협력체제를 강화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유대관계를 공고히 했다.

이언구 의장은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 왕헌괴 주임과의 회담에서 “그동안 충북도의회와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청주국제공항과 하얼빈공항의 직항 정기노선이 개설되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고 ▲청주공항과 하얼빈공항 국제 정기노선 확대 ▲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참가 ▲충북경제자유구역 투자 등 지역교류의 질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3대 의제를 제의했다.

왕헌괴 주임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드시 운항이 증편되도록 하겠다”며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도 부성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북경제자유구역 투자에 대해서도 “중국내 한국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졌듯이 흑룡강성 기업들의 충북경제자유구역 투자에 적극 협조 ·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단은 하얼빈 한인회를 방문해 이성룡 회장으로 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민들을 격려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6월 1일부터 4일간 중국 흑룡강성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청주공항-하얼빈공항 국제 정기노선 확대,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참가, 충북경제자유구역내 투자」 등 실질적인 교류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당부

시·군 연계한 막바지 홍보 최선·관계자들 격려



▲ 충북도의회는 6월 8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빈틈없는 준비와 추진을 당부했다.

충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6월 8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의회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자들에게 “개최를 100여일 남기고 메르스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성공적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격려한 뒤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청정지역인 괴산에서 개최하는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에 대통령께서 꼭 참석토록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잔치를 벌여놓게 되면 사람이 많아야 성공하는 것이니 무엇보다도 막바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인근 시·군민들이 아직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 각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초청 전체의원 연찬 개최

바이오산업육성 등 충북의 지역발전 방향 함께 모색



▲ 충북도의회는 6월 9일 썬프라자에서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초청해 「지역발전 정책과 지도자의 가치관」을 주제로 연찬회를 실시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언구)는 제340회 임시회 첫날인 6월 9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지방행정의 달인’인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을 초청해 ‘명사초청 전체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바이오 산업육성 등 충북의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이원종 전 지사의 해안과 노하우를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관선·민선 충북도지사를 3번 지낸 이원종 위원장은 ‘지역발전정책과 지도자의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 위원장은 특강에서 충북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바이오산업육성 등 충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시대 지역 지도자로서 도의원이 가져야 할 가치관으로 분명한 목표와, 적절한 타이밍, 프로정신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참석한 도의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40회 임시회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한범)는 6월 18일부터 10일간 실시된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충청북도의 민선 6기 추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신설되는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를 관할하는 재난안전실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로 정하고, 폐지되는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 사무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삭제했다.

이와 함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의 명칭을 행정국으로 변경했다.

제34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정례회 회기 중 제

10대 충청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또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4회 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기타 안건 처리,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형도,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동 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기의 무궁화속 원내와 도의원배지의 議를 '의회'로 모형 및 규격을 바꾸려는 것으로, 이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추진하는 '시·도의회 배지 한글화 사업' 통일 디자인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충청북도의회는 의회기와 의원배지 디자인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원배지와 의회기를 연내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기타 시설물의 의회마크 등도 교체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현안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40회 임시회

메르스 확산 방지 등 현안해결 앞장 촉구



정책복지위원회는 6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현안을 심사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원 연구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

또 160만 도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충청북도 메르스대책본부 상황실과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감염병 전문격리병동 운영실태를 직접 점검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위원회는 6월 9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본회의에 제출 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북 소재 세명대를 포함한 일부 지방대학이 수도권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지역상권의 붕괴와 비수도권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게 됐다.

6월 10일 박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적·공적 이익이 상호 충돌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비밀유지 및 위촉해제 등의 신설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법리적·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리고 위원회 단체 연구활동으로 진행한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예방 및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와 임병운, 최병운 위원이 공동 추진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생활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의원연구 활동에 대한 최종보고회에서는 자문위원, 의정참여단의 정책복지 분과위원들이 참석해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또한 충청북도 메르스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관계 직원들을 격려한 뒤 메르스 확산방지에 만전을 당부했다.

정책복지위원들은 또 청주의료원을 방문해 감염병 전문격리병동과 메르스 환자 관리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청주의료원이 메르스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경증 및 의심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40회 임시회

“현장이 답이다” 현지확인 통한 도정 점검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희무)는 제340회 임시회 회기 중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청주시 일원을 현지 확인하고, 충청북도 NGO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에 대한 점검과 현황 등을 확인했다.

먼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유의 구(舊)중앙초 부지와 충청북도 소유의 구(舊)충북체고 부지를 교환하는 것과 내수면연구소에 사업비 2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자하여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동 계획안 심사를 위해 구(舊)중앙초 부지와 구(舊)충북체고 부지를 방문한 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부지교환 이후 도민은 물론 각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부족한 충북도청사 문제와 충북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주차문제 등을 빈틈없는 계획 수립으로 확실한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2012년부터 이어진 쏘가리 완전 양식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도록 쏘가리 대량생

산 연구시설 건립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NGO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희무 위원장은 “앞으로의 사회는 민·관이 함께 소통하여 모두가 행복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이해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경험과 조직의 힘이 약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NGO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서 업무재창 의원은 “북부·남부 출장소 설치 당시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능과 역할강화를 통해 북부·남부지역 도민들이 만족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고, 최광옥 의원은 “각종 재난사고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신설하는데,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충청북도 만큼은 철저히 준비하고 검토하여 재난안전실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10일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해 (구) 충북체고와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40회 임시회

유관기관과 협조 통한 가뭄극복 최선 요구



위원장
이양섭 의원



부위원장
김학철 의원



김인수 의원



박우양 의원



이의영 의원



황규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1일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장미산 마을을 방문해 발작물 가뭄피해 현황을 듣고 현장을 살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가뭄피해 현장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를 방문해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경제통상국·경제자유구역청과 현안사업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국회에서 개최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정비산업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올 봄부터 가뭄이 지속되어 발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6월 11일 충주 중앙탑면 장천면 장미산 마을을 방문해 충주시 관계자와 농민들로부터 발작물 피해 현황을 듣고 관정개발, 양수기 지원 등 가뭄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 관리단을 방문해 담수상황을 점검하고 도내 댐의 저수율과 가뭄대책 등을 듣고 농업용수와 식수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12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를 방문해 도내 저수율 현황을 듣고 가뭄해결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양섭 위원장은 “가뭄극복을 위해 충북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제

안했다.

이와 함께, 경제통상국·경제자유구역청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이란 정부의 20억 달러 투자협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활동 강화를 강조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정비산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의 경쟁력과 그 활용방안’과 ‘국내·외 항공산업의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우택, 변재일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충북권 국회의원 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성호 항공대 교수는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는 MRO 사업부지 확보 및 확장성 구비, 인천·김포국제공항과의 근접성, 각종 세제감면 혜택, 충북도내 항공정비인력 양성기관의 다수 구성 및 우수 항공정비인력 양성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청주공항에 MRO 산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40회 임시회

충청북도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5분 자유발언 등을 실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6월 15일 실시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주택·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불합리했던 중개보수 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중개보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시장의 혼란 등을 우려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정부의 권고안대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6억 원이상 9억 원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0.9%이내에서 0.5%로, 3억 원이상 6억 원미만의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0.8%이내에서 0.4%로 중개보수 요율을 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재는 최대수수료를 120만원, 임대차는 최대 24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어 매매보다 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임대차 최대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등 충북에서도 고가구간(매매 : 6억원 이상, 임대차 : 3억원 이상)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임순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복지 예산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이후 진행과정에서 한발씩 더 나아가는 복지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권자들의 표심만을 노리는 복지공약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북도가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충청북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상급식 공약은 당시 예산문제를 많이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선거 공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한 양 기관의 마찰로 전체학생의 무상급식이 어려워진다면 지금이라도 선별적 복지를 선택해 예산비율을 맞추고 남은 예산은 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6월1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현안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

제340회 임시회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주요현안 심사



위원장
윤홍창 의원



부위원장
정영수 의원



김양희 의원



이광희 의원



이숙애 의원



이종욱 의원



교육위원회는 6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등 기타 현안을 심사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윤홍창 위원장)는 6월 10일 제 34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고 윤홍창·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의결했다.

또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충청북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3년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과 학업중단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실태 분석, 학업중단예방교육과 학생·학부모 상담 및 숙려제 운영 강화,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해마다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정기 및 수시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각 급 학교·납품업체에 공개하는 등의 검사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핵심내용으로 담았다.

「2015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조 2,404억 6,345만 4,000원 중 옥상정원조성 1억 9,972만원, 청소년오케스트라 1억 844만원, 교육정책 개발 8,676만원, 교육 CEO 정보화 역량강화 연수 1,072만원, 전국연구원장협의회비 844만원 등 총 4억 1,408만 5,000원을 삭감해 2조 2,400억 4,936만 9,000원으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들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됐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사업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들이라고 지적하며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40회 임시회

도교육청 제1회 추경 2조 2,405억 원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재창)는 제340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2조 452억 원 대비 9.5%인 1,953억 원이 증액된 2조 2,405억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748억 원, 평생 직업교육 부문에 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지난 6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획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이 오가며 심도 있게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 등의 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교육채 369억 원의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매년 규모가 커지는 누리과정 지원과 무상급식비 등 고유사업 추진이 위축되

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라톤 심사를 통해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12억 7,000만원 중 4억 원을 삭감하고 학교 옥상정원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8억 1,408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했다.

엄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특위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열악한 재정 환경을 고려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 실효성이 없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금번 충청북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15년도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확정교부와 국고보조금 및 교육지방채, 자체수입 변동에 따라 증액된 세입재원을 토대로, 2015년도 당초예산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국가시책 대응투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 비정규직 처우개선,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5일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충청북도 민선6기 도정 전반에 대하여

김 양 희 의원
(교 육 위 원 회)



☑ 메르스·무상급식 관련

- 질문** | 지사님!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하여 초기 대응 등 도내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메르스 관련 격리자, 일반접촉자 등 현재 22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1대1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질문** | 옥천지역에 있는 메르스 환자가 병원을 돌아다닐 정도인데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 답변** | 삼성병원이나 정부에서 전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 질문** | 지금 중앙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대책반을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 답변** | 몇 개 병원을 다니는 동안에도 병원에서도 의심을 못했고 보건소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을 인정합니다.
- 질문** | 옥천 문제에 대한 염려와 함께 충북의 건강권을 지켜주실 것을 촉구하며, 평생복지분야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결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답변** | 무상급식과 관련해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해서 제시한 숫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질문** |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두분이 합의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 창조경제·균형발전 관련

- 질문** | 창조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청주에코폴리스 4.2제곱킬로미터 중 2.2킬로미터는 개발을 하는데, 나머지 2.0킬로미터에 대해서는 개발의지가 있습니까?
- 답변** | 2.2킬로미터는 국방부와 협의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개발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2.0킬로미터는 어렵습니다.
- 질문** | 2015년 균형발전 예산이 22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전체 0.6%로, 2014년 240억 0.7%보다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2단계 균형발전 예산만 해도 550억이 넘습니다. 균형발전은 제가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 질문** | 충북도 문화예산 2% 확보를 공약하셨는데, 재임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오히려 문화예산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전체예산 2%를 문화예술분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4%충북경제 실현 관련

- 질문** | 전국대비 4% 충북경제실현 관련입니다. 2010년에서 2015년 5월 초까지 MOU체결한 투자유치 기업 414개에서 정상가동 중인 것은 149개로서 전체의 36%입니다. 공장을 건립중인 54개를 포함해도 50%가 되지 않습니다.
- 답변** | 민선5기 투자협약만 309개 업체인데 정상추진 비율이 87%입니다. 타 도에 비하면 정상추진 비율이 높습니다.
- 질문** | 4%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 고용율 72%를 정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높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 답변** | 충북의 고용률이 타 시·도보다는 2%정도 높은 추세여서 2018년 72%가 달성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충북도의 고용정책 관련

- 질문** |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전국은 임시근로자가 -0.6%로 줄고, 대전은 1.9%, 충남은 0.4%인데 충북은 3.2%로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임시근로자가 전국평균보다 충북이 높습니다. 임시근로자가 많이 줄어들고 정규근로자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질문** | 젊은 여성 공무원들이 충북도정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하시겠습니까?
- 답변** |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질문** | 충북의 실업률이 2012년도 2.0%, 13년도 2.1%, 14년도 3.0%, 15년 4월 기준 3.4%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답변** |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실업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률 문제는 우리 도가 전국대비 낮은 편입니다.
- 질문** |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충북지역 고용의 질 저하 관련 종합대응책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둘째, 해마다 상승하는 충북의 실업률 해소를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의회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시·도의회 배지 한글화사업」통일 디자인이 확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모형도·규격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관련 규칙 개정

〔주요내용〕

-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개정
- “의회기와 의원배지” 모형도 및 규격 등 세부내용 개정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민선6기 추가 조직개편에 따른「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책복지위원회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함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함
- “재난안전실”을 건설소방위원회로 정함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희 의원)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학교급식의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노력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장과의 협력체 제구축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
-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 및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부시책 추진 인력과 소방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정원(3급)의 기한연장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3,206명 → 3,282명(+76명)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내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충청북도와 공유재산 상호 교환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취득〉 (단위 : m, 천원)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재무과	토지	구충북체육고 토지 교환 취득	7,613.0	4,034,890
청주교육지원청	건물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998.0	2,761,000
합계			8,611.0	6,795,890

- 〈처분〉 (단위 : m, 천원)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재무과	토지	구중앙초 토지 교환 처분	13,525.70	10,279,000
무과	건물	구중앙초 건물 교환 처분	5,892.96	1,973,820
과	기타	구중앙초 공작물 및 입목죽 교환 처분	28식 53주	250,000
합계			19,418.66	12,502,82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5학년도 학교(유치원) 신설, 폐지, 교명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유치원 신설(2개원), 폐지(3개원) 등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불합리한 중개 보수 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중개보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규정 삭제
- 주택 중개보수 매매 · 교환 및 임대차 등 요율 신설 등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제안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윤홍창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구(舊)중앙초 부지 및 건물을 교육청에서 무상사용 중인 구(舊)충북체고 부지와 교환하고
-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에 쏘가리 대량시설 연구시설을 신축

〔주요내용〕

- 구(舊)중앙초 부지 및 건물 교환취득
-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 구(舊)충북체고 부지 교환처분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한범 의원)

〔제안이유〕

- 위원회의 제척 · 회피 · 위촉 해제 사유 명시 및 비밀유지 규정을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

〔주요내용〕

- 위원회의 제척 · 회피, 위촉 해제 사유 신설 및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내용의 비밀유지 조항 신설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 ·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 기정예산 2조 451억 6,062만원에서 1,953억 283만 4천원 증액된 2조 2,404억 6,345만 4천원으로 편성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 및 한시기구 연장 등 국단위 기구 · 기능 조정 사항과 사업소 명칭변경 등 기능 재배치 사항을 반영 등

〔주요내용〕

- 기구조정 : +1실 (1실 7국 2본부 → 2실 7국 2본부)
 - 신 설 : 재난안전실
 - 명칭변경 : 안전행정국 → 행정국
 - 한시기구 연장 : 혁신도시관리본부 2016. 6.30.까지 1년간 기간 연장
- 사업소 명칭 변경 : 세종사무소 → 서울본부
- 분장사무 조정
 - 지역정보화, 정보통신, 정보보호 업무 : 기획관리실 → 행정국
 - 안전관리 총괄, 민방위, 경보통제업무 등 : 안전행정국 → 재난안전실
 - 자연재난관리, 재해예방 · 복구, 하천 업무 등 : 균형건설국 → 재난안전실



이 종 옥 의원
(교육위원회)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창출, 고용안정 위해 모두 협력해야

저는 오늘 충북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고용창출 그리고 고용안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13일 발표한 2015년 4월 '청년실업률'은 10.2%로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동월대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실업을 구조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몇가지 해결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단기적 부양책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입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지역기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으로 신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윤 홍 창 의원
(교육위원회)

세명대 하남 제2캠퍼스 설립저지에 충북도 앞장서야

제천 세명대학교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충청북도와 이시종지사가 중심이 되어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

응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세명대 하남시 제2캠퍼스의 설립이 제천과 충청북도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동운명체의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시종 지사께서 세명대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서 여야를 막론하고 충북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심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충청북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천시와 함께 세명대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여 세명대와 제천지역이 함께 상생발전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임 순 목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원칙과 신뢰를 존중하는 충북도가 되어야

이시종 지사께서 지난 2010년 민선 5기 도지사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12대 핵심과제 중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당시 획기적인 공약으로 많은 도민과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큰 승리요인이 되었습니다.

복지제도는 한번 만들면 낮추기도 힘들지만 없애는 일은 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무상복지는 제일 먼저 예산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이후 진행 과정에서 한발씩 더 나아가는 복지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표심만을 노리는 복지공약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예산을 가지고 양대기관의 마찰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 전체학생의 무상급식이 어려워진다면 지금이라도 선별적 복지를 선택해 상위층 학생(학부모)에게는 급식비를 부담하여 예산비율을 맞추고 남은 예산은 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약한 각종 시책들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니 만큼 반드시 실천·이행되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윤 은 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메르스(MERS), 그 후를 준비하자

중동호흡기증후군인(메르스)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메르스는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더 큰 문제는 메르스 그 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와 3분기 경제성장률은 0.5%,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중국관광객 방한 취소 등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던 6개 항공사 10개 노선 222편의 항공운항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관광이나 청주공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 이시종 도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피해분야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비비, 추경예산 편성 등 필요예산을 신속·과감하게 투입하고 피해업종과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메르스 그 후의 경제적 문제점들이 지역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강력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숙 애 의원
(교육위원회)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지역사회가 겪어야만 했던 혼란과 갈등, 공여지책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만 했던

충북교육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바라보며,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의회 이름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청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7%에서 22%로 상향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교부금 산출방식을 학교 수에서 학급과 학생 수 위주로 변경하여 통폐합을 유도하는 개정안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법체계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의 재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을 시도하여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의회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



1등 충북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는
도민을 위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제341회 정례회 안내

- 회 기 : 7. 1(수)~7. 14(화)(14일간)
- 주요안건 :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014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 방청안내 220-51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과 도의원들이 5월 21일 이시중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제천시 용현동에 위치한 「충청북도북부출장소 새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청주시 사직동에 위치한 충훈탑에서 실시된 '추념식'에 참석해 현화,목념을 하며 호국영령들을 위로했다.



▲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은 6월 10일 한국폴리텍대학교 청주캠퍼스 대강당에서 「오늘의 도전과 경험, 내일의 희망」을 주제로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실시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6월 1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주 금천고와 충주 국원고 학생 70여명을 초청해 청소년들에게 의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 충청북도의회는 6월 17일 의장실에서 충청북도공동모금회와 「급여나눔 협약식」을 갖고 매월 지급되는 의정비 중 1만원 미만을 공제해 복지취약계층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기로 했다.



▲ 교육위원회는 5월 6일 일신여자고등학교 본관교사 및 급식소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10일 충청북도NGO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 정책복지위원회는 6월 1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위원회 단체 연구로 추진한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예방 및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실시했다.



▲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분부를 방문해 가뭄피해 대책 간담회를 갖고 가뭄을 극복하자고 외치고 있다.



▲ 건설소방위원회는 5월 1일 우수한 소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소방서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시설을 견학했다.



▲ 교육위원회는 5월 21일 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실시한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충북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여름철에 조심해야 할 질병



무덥고 습한 바깥 날씨와 달리 건물의 실내나 대중교통 시설 내부의 온도는 여름이란 계절이 무색하게 서늘하다.

한여름에 자주 나타나는 일사병, 열사병, 냉방병은 바로 덥고 차가운, 극명한 외부와 내부의 기온 차이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이다.

적당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막자, 일사병

일사병이란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체온이 섭씨 37~40도 정도로 상승하고, 적절한 심박 수를 유지할 수 없으나 중추신경계의 이상은 없는 상태를 뜻한다.

보통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지 않았거나 염분과 무기질이 낮은 음료로 수분을 섭취했을 경우 발생한다.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실신으로 이어진다.

서늘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전해질 음료를 섭취하면 1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중추신경계까지 위협하게 하는 열사병

열사병은 방치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더위로 인해 열사병에 걸리면 시상하부에 위치한 체온 유지 중추가 기능을 잃고 열을 외부로 발산하지 못해 체온이 40

도 이상으로 올라가며 중추신경계, 근육, 간, 콩팥 등 여러 장기가 손상된다. 전조 증상은 일사병과 같이 무력감, 메스꺼움, 근육 경련, 평형장애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열은 간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열사병 발생 24~72시간 뒤에는 황달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혈당이 낮아지면서 손발 떨림, 의식저하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적당한 온도의 물로 몸을 자주 닦아주고 바람을 일으켜 열이 증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과도한 냉방기기 사용이 원인인 냉방병

냉방병은 더운 바깥 날씨와 서늘한 실내 기온에 적응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지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걸리는 것이다.

더불어 에어컨의 냉각수나 공기가 세균에 오염되어 발생하는 레지오넬라증, 시원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냉방병을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이다.

따라서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5~6도 이상 나지 않도록 에어컨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에어컨 필터는 최소 2주에 한 번씩 청소해주는 것이 좋다.

또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자.

(자료제공: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메디체크)



백흥귀 내과전문의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세종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신청사



“한국건강관리협회, 6월 22일 봉명4거리 신청사에서 건강검진 업무 개시”

충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기존 상당구 지북동 청사에서 고객 수요 증가와 쾌적한 검진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봉명4거리에 연면적 9,447㎡(2,862평)의 지상 6층, 지하 2층 8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완비한 종합검진센터를 완공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신청사 이전에 맞춰 우수한 의료 인력과 최신 검진 장비를 도입하고, 다양한 맞춤형 건강검진프로그램을 통해 신수도권의 품격에 맞는 명품종합검진센터로 충북도민의 건강 도우미 역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자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확정일자신청 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 받을 수 있음

지 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4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3억원 이하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경기)	2억 4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8천만원 이하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로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4년 1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양도소득금액 1억 5천만원)하는 경우 세금을 5천 6백만원(38%세율적용) 정도 내야 하지만, 취득시 공동명의로(각각 1/2지분)로 하면 세금이 3천 7백만원(각각 24% 세율적용)정도가 되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료제공 : 동청주세무서)



영유아 학대 예방! 보육교사 교육이 급선무



박 봉 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올해 1월 인천 연수구에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아이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전국의 어린이집들이 학대의 온상이자 사각지대인 것처럼 누리꾼과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물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고, 스스로를 방어할 힘도 없는 영유아(6세미만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대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마치 마녀사냥 하듯 보육시설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보다는 영유아학대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6,796건을 살펴보면, 피학대 아동의 경우 영유아(6세미만 취학 전 아동)가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부모, 친인척 및 대리양육자가 97%로 어린이집을 포함한 타인에 의한 학대는 3% 수준에 그쳤다.

비록 3% 수준에 불과하지만, 보육교사에 의한 영유아학대 근절도 중요하기에 CCTV 설치, 부모 모니터링단 확대 등 다양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실제 영유아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영유아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 제3자인 누군가의 의도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학대유무를 확인하

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 마련에도 주목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 보육교사가 관찰자 및 상담자로서 내원한 영유아의 행동 및 심리적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보육시설에서 학대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부모 및 영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본 의원이 충북도 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668명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관련 지식 및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정도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정작 학대받는 아동을 목격했을 때에는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개입여부의 답변을 회피한 응답자가 46%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및 신고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의 개념 및 제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대처요령에 대해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의무 이행을 통해 보육시설이나 교사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신고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유아 학대로부터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임을 명심하고, 여론몰이에 휘둘린 정책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진단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1) 조사 대상: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668명), 조사시기: '15. 4월 중

위기(危機)가 대한민국 정부에 하고싶은 말은...



연철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먼 중동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메르스(MERES · 중동호흡기증후군)’가 대한민국에서 와서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의 확산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매우 불

안해하고 정부가 하는 발표를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

1년 전 세월호 사건과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는 정부를 보면 유사한 점이 많아 소스라치게 놀란다.

메르스가 발생한 지 15일이 경과한 6월 3일이 되어서야 대통령 주재의 첫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가졌을 만큼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해당 병원의 목록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불가 입장을 고집했다.

현 정부가 특정 병원을 비호하는 듯한 비밀주의와 불통을 비난하는 국민여론은 급격하게 늘어만 갔고 결국 정부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들을 공개했다.

정부가 초동조치에 실패한 탓에 의료진은 더위와 메르스 감염 위험 속에 방호복 ‘후드’(안면보호구)를 재사용하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 며칠 전 건양대 병원에서는 메르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간호사가 감염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눈에는 유언비어나 괴담에 불안해하는 무지한 국민들만 보이는 것 같은데 IMF 사태 때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추위에 쪼그려 앉아 오염된 돌멩이를 닦아 절망을 기적으로 만든 국민이나 지금 메르스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은 같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정권만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민을 타하기 전에 정부는 먼저, 국민과 소통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자기비판부터 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며, 신뢰를 구축하려면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의 주장을 국민에게 믿으라고 홍보를 하듯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부의 양방향 소통을 말한다. 대한민국 앞날은 비단길만 펼쳐진 것이 아니다. 위기는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지도자와 함께라면 우리 국민은 위기도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 나설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여주기식 전통시장 방문이나 사전 각본에 의한 방송용 대화가 아닌 진정성 있는 국민과 소통을 하였으면 한다.

미국 현대사의 양심으로 존경받았던 하워드 진 교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만 맺고자 한다.

“내가 사랑하는 건 조국, 국민이지 어쩌다 권력을 잡게 된 정부가 아니다. 어떤 정부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그 정부는 비애국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사랑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정부에 반대할 것을 요구한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 청원안내 |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제출사항

-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표시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 요구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자치단체 소관업무 등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4

| 민원안내 |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민원은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민원제출방법

- 우편민원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b.cb21.net>의 「진정 / 민원」에 글쓰기
- 전 화 : 043) 220-5154
- 팩 스 : 043) 220-5159

| 방청안내 |

■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b.cb21.net>